

우리 당의 추억 속에 영생하는 충신, 혁명 전우

당중앙위원회의 오랜 일군이였던 김중린동지가 받아안은 고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당중앙위원회 비서(당시)였던 김중린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제 4 1 (9 5 2)년부터 주제 9 (2010)년까지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였다. 우리 당역사에 충실했으므로 그 이를 새긴 당일군들이 수없이 많지만 김중린동지는 중앙당일군들 가운데서 좌상이라고 하면서 그를 높이 내세워 주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밀기고 그 어떤 사실도 없이 깨끗한 향실과의리로 받든 혁명전사의 삶은 이렇게 당파수령, 인민의 추억 속에 영생한다.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에서

김중린동지에게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해 오는 나날들이 털어버리며 눈시울을 드롭게 하면서 추억하는 시기 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당중앙위원회에 모시고 그이로부터 수령님의 혁명사업을 직접 보좌해드리는 중앙당일군의 사상과 정신, 풍토를 배우면 뜻깊은 일군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소식을 들은 때부터 김중린동지의 마음은 풀풀 그이에게 달렸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려고 키친한 가르치심을 받아야하고 싶은 마음을 청진할수었다.

그러던 그의 청진한 소원이 마침내 풀리었다. 주제 5 3 (1964)년 1 2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중요한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단 것이다.

만번에 넘치는 해빛 같은 미소, 예지로 빛나는 안详, 우렁우렁한 음성, 활달한 동작...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청진한 소원이 젊은 그이의 일정에 넣히고 준수한 인력만이 아니었다.

처음 만나니 만갑다고, 수령님으로부터 이미 밀음을 들은 동무를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며 미처 구멍지기인듯 허물없이 대화 주시는 그이의 인품과 천혜에 김중린동지는 첫 순간부터 끌리었다. 청진이자 우뢰수령님이 아니시다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오늘같은 영광의 삶상으로 오를수 있었으라는 생각에 김중린동지는 끄러운 것을 살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하면 시기 지강도 우시군 깊은 산골의 민농가정에서 태어난 김중린동지는 해방후에야 인간의 삶과 존엄을 누릴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선조로 동정의 한 선원, 당일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를 언제나 각별히 관심하시며 중요한 사업을 맡겨주시고 키운 가르치심도 주시며 칠웃을 번활세라 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김중린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처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일하는 청진한 혁명가였기 때문에 김중린동지는 모든 일을 당에서 요구하는 데에서 정확히 집행하곤 하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늘 수령의 세상으로 무장하고 그대로 사업하게 하여 어이급파에 애쓰던 김중린동지의 모습을 세겨두시고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서의 사상정신준비를 한계단 더 높이 추구하는 과정이었고 어느 고교진이나 대학에서도 배우수 없었던 당시사업법과 원리를 깊이 토론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김중린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처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일하는 청진한 혁명가였기 때문에 김중린동지는 모든 일을 당에서 요구하는 데에서 정확히 집행하곤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미덥게 바라보시며 수령님을 발달에 일을 잘하고, 우뢰수령님께서는 혁명위업은 수령님께서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1 9 6 0년대 중후반 우리 당에 기여하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의 핵동으로 심각하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었는데 위대한 혁명위업을 대로 이어 유행하는 것이라고, 조선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우리 뜻을 같이하고 일을 잘하고자 했던 당부하지 않았다.

당시 남조선인민들과 외국의 빛들속에서는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아 높아가고 있었다.

어느날 김중린동지와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광 반란한 혁명역사가 통합적으로 수록된 전기를 끝에 대한 평가를 주시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전기장을 끝에 대한 평가는 어버이수령님의 전기장을 끝에 대한 평가였다. 그들은 그을레로 이 사업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며칠 후 또다시 김중린동지가 당군님께서는 당간에 기여한 이색 분들에게 대로 수령님의 전기장을 끝에 대한 평가를 주시였다.

김중린동지가 당간에 기여한 이색 분들에게 대로 수령님의 전기장을 끝에 대한 평가를 주시였다. 그들은 그을레로 이 사업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아니었다. 꽃으신 나아이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풍격도 소탈하시여 당중앙위원회 어느 부서 일군들이나 모두 그이를 스승으로, 지도자로 우리로써 바랐다.

하지만 김중린동지는 얼마나 위대한 분을 우리 당과 혁명위업의 후계자로 모시었는지, 우리 조국과 혁명의 창장한 일길에 엄마나 높부신 빛발이 미치지 않았는지 그때까지 디는 일수 없었다.

김중린동지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둘리시고 자주 그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문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 혁명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 대한 문제였다.

수령은 루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그가 일처리를 어떻게 할지 불과할 때에는 죽석에서 명백한 해결방도를 제우쳐 주시였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만나시여 키운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깊에도 데리고 다니시며 일군의 품과 자질에 대하여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우리 시대에는 세심하고 구체적인지도가 필요합니다. 작전은 크게 하고 지도는 구체적이어야 일자리가 크게 납니다. 수백회는 식으로 지도에서는 짹 번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고시하시면서 그의 일에 대해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어느날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김중린동지는 우리 당의 원로,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전형의 한 사람으로 오늘도 당의 혁명하고 고성하고 있다.

언제인가 출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김중린동지는 책상에 놓은 품과 저녁을 먹고 있다. 그것을 봐게 되었다. 출장지의 일군들이 현지에 와서 수술을 담도록 해주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고시하였다.

『우리 서로 영원히 손을 잡고 주체업무를 위해 함께 헌마을 한뜻으로 험해나갈 시대입니다.』

나파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에서도 그의 헌마을은 끝까지 험해나가야 어떤 대로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김중린동지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가정이라고 하여 일민들과 다른 생활, 품새를 해야 험해나가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동지는 진급하고 중요한 출장업무를 받은적이 있다.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헤우쳐 주신 적은 또 그 몇번이 었던가.

그리고 11월 김중린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200 일전투의 승리를 향해 총격, 충매전 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이 무신전역에 세차게 나에게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받고 무산군피해복구전투장에 달려와 불과 20여 일동안에 500동의 소총살립점, 169동의 단총살립점포로 풍사장을 전부 완성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지금 외부미장은 9.5%, 내부미장은 5.5%에 걸쳐서 힘있게 다크치면서 상방달기 및 마감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근 1500세대에 달하는 소총, 단총살립점포를 완성한 70%에 걸쳐 풍사장을 전부 완성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미리 기상과 함께 미장은 9.5%, 내부미장은 5.5%에 걸쳐서 힘있게 다크치면서 상방달기 및 마감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근 1500세대에 달하는 소총, 단총살립점포를 완성한 70%에 걸쳐 풍사장을 전부 완성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미리 기상과 함께 미장은 9.5%, 내부미장은 5.5%에 걸쳐서 힘있게 다크치면서 상방달기 및 마감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북면땅에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울릴 그날을 앞당겨간다

무산군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 살림집건설성과 계속 확대

당의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새겨 기 위해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 같이 뛰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황일의 원군, 원민 전통이 창조된 두만강연안 북부지대인 무산군피해복구전선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각 부대의 장병들은 힘들은 살림집환경의 그늘을 앞당

기 위해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무산군회장지휘부에서는 모

든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단층에의 기상, 만리마속도로 내달려 당시에 정해준 시간에, 당시에 요구하는 혁명군가의 힘찬 포성이 무산군의 살림집건설전투를 걸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원을 잘 짜고들고 있다.

무산군피해복구전투에서 기어이 뛰쳐일어나 군인건설자들의 학교부동한 신념과 의지, 혁명적 열의를 보여주는 좋은 기발들과

명시대종을 만리마속도창조에 고무주동하는 전투속보관들이 끗곳에 세워져 적절의 분위기를 양양시키고 있다.

집중포화, 펜속포화, 명종포화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혁명군가의 힘찬 포성이 무산군의 살림집건설전투를 걸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원을 잘 짜고들고 있다.

미래과학자거리와 레밍거리

전설에서 위훈을 펼친 조선인민군 권역 학소속부대 장병들이 무

산전역에 달려나가 기적상조의 앞장에서 달리고 있다.

폭풍처럼, 희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단층에의 기상으로 5층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과 함께 절제로 힘을 냠여 공사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황보학, 윤영소

전술에의 기상은 단층살립점

공사장에서도 새롭게 나에게고 있다.

지휘관들은 호봉법, 현판법,

단위별 사회주의 경영을 방법론 있게 조작하여 매일 공사파제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부대별 품에 대한 철저한 단층에의 기상으로 공사기밀을 앞당기고 날짜까지 공사를 끌고나가고 있다.

조선인민군 황보학, 윤영소

속부대의 지휘관들은 공사목록 수행에서 해일이란 일 없다는 판정을 지니고 군인들의 정신력을 풍족발시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김명호, 김국현소 속부대를 비롯하여 소총살립점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부대에서는 시대세대를 먼저 꾸리고 보여주기 사업을 통하여 지휘관들에게 시공의 요구를 깊이 세우고 있다.

조선인민군 신명성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맞아드는 난관을 지역자강의 정신력으로

풀고나가면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고 있다. 일별, 주별, 월별 전투목표가 대단하고 통이 크게 세워지고 한치의 드릴도 없이 풀어버리는 속에 부대의 공격속도는 더욱 높아져 내부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고 있다.

조선인민군 바춘초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하루빨리 북면땅의 퍼해지역 인민들에게 누구나 부과워하는 새 생활을 알겨 주기 위해 풍성한 경기선동부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부대별 품에 대한 철저한 단층에의 기상으로 공사기밀을 앞당기고 날짜까지 공사를 끌고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매일매일의 전투실적을 보고드린다는 충정의 각오를 안고 더욱 분발해 나선 군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미지 않아 북면땅에서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온 누리로 전갈하며 높이 울리게 될 것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북부피해복구 사업을 200 일 전투의 중심과제로 박영하고 모든 힘을 총동원,

재난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남덕탄광

현행생산과 전망, 불가분의 적인 두 전선의 유기적결합은 경제발전의 핵심적요구로 나선다.

정영관동부를 비롯한 탄광 군人们的 사업에서 찾기보게 되는 좋은 점은 현행생산을 보장하는것처럼 탄광의 생산자회

체계를 완비하고 생산자대중의 창의성발성을 끌어올리며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IP통신에 의한 정보망구축, 경안에 생산장부와 단차수

로기기진설, 판성식재운반설비

들을 짐없이 도입하고 벨트

프레인정영관동부는 북선공

사를 불이 번개 나게 해제될으

로써 탄자들의 분기점되풀이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있다.

정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을 수록 경제발전의 중심과제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뼈대를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야 한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

위복의 기적적승리를 행위하기 위한 오늘의 인민사수전, 인민

부전투는 탄광원동군들을 하여금 결제하는 신체력으로 헌신

된다.』

북부지구탄광련합기업소 회

인체탄광원동군과 탐사대

원들은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착한 전선용사들로 한정호에

전 심정으로 탄광화보성

과를 끌어내고 있다.

지난 7.0일전투기간 시추탐

사속도를 풍성에 대해 10배로

높인 그 기세를 조금도 높출이

없이 이곳 탐사대원들은 넘버탄

광지구의 여러 기소에서 면밀한

작전을 펼쳐주고 있다.

당 조직의 노력은 드높은

암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이곳 탐사대원들은

년간 시추전진계획과 경도를

제 충분한 문화유적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음을 쓰고

있던 군人们的 노력은 드높은

암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이곳 탐사대원들은

당 대장 오호연, 초급당원위

장 려희남, 기사장 김대영원

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힘흔한

일군들의 사업에서

의 신들에 더 바싹 조이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벤트본래이종환은

전경분기점에서 부산공사가 진행될 때였다.

단선으로 되어있던 분기점은 운반선으로 선반으로 옮겨졌다.

이후에는 단선으로 끌어온 목재를 반대쪽으로 옮겨졌다. 그 후에는 단선으로 끌어온 목재를 반대쪽으로 옮겨졌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것을 알고 경초급임군들이 저마다 힘을 쏟아온다. 그 전후로 하여 탄광일군들이 판부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나 마음만 먹고 한 사람 같아지면서 단선의 협심을 차운 긴장됐다.

더 어렵게 해야 할것인가. 이런 생각에 광장에서 차운 탄광의 협심을 차운 긴장되었다.

그리고는 단선으로 끌어온 목재를 단위로 차운 긴장되었다.

『함께 책임지고 분별있게 내밀어주시다.』

엄마후 공사개시를 알리는

돌격구멍이 뚫려졌다. 공사의 중요성을 실증마다에 간직한

대중의 무공무진한 상조역이

단선으로 끌어온 목재를 단위로 차운 긴장되었다.

『함께 책임지고 분별있게 내밀어주시다.』

엄마후 공사개시를 알리는

돌격구멍이 뚫려졌다. 공사의 중요성을 실증마다에 간직한

대중의 무공무진한 상조역이

단선으로 끌어온 목재를 단위로 차운 긴장되었다.

『함께 책임지고 분별있게 내밀어주시다.』

엄마후 공사개시를 알리는

돌격구멍이 뚫려졌다. 공사의 중요성을 실증마다에 간직한

대중의 무공무진한 상조역이

단선으로 끌어온 목재를 단위로 차운 긴장되었다.

『함께 책임지고 분별있게 내밀어주시다.』

엄마후 공사개시를 알리는

돌격구멍이 뚫려졌다. 공사의 중요성을 실증마다에 간직한

대중의 무공무진한 상조역이

단선으로 끌어온 목재를 단위로 차운 긴장되었다.

있다. 여러 정에서 나오는 탄자들이 풀어지거나 종합운반

경부 기점에서 서는 전환된다.

독립선은 단층을

단층으로 풀어지거나

시초 북부전선 불라는 북부전선

장명길

북부전선!
죽음의 물갈기가 덮쳐들었면
이 땅
연연 1,300여리 두만강전역에
낮도 없이 밤도 없이
격전의 불이 끓는다

강변에도 산만에도
위밀인 물결의 대오
길을 미우며 북구데들이 달린다
자동차들에 끼리를 물었다
전시수송차들이 차륜에 불꽃을
튕긴다

지휘관의 목길만 구명소리
어엇싸, 푸인을 워흔드는 병사들
의 함성
허공중에 조자 바늘들에 갈통이 없는
백열의 전장!

아직은 인류가 몰랐던 전쟁
인민이 죽는 재난보다
인민이 당한 불행보다
더 큰 아픔 더 엄혹한 비상시태는
없어

백두의 평강이
라는 가슴에 인민을 안고 나선
인민사수의 전쟁이다

그렇다 우리는 전쟁이라 부른다
보금자리 일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새침을 지어주는 전실을
아이들의 학교길 얹어주고
노래와 글소리를 찾아주기 위한
전두를
대홍수가 삼켜버린 것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기 위한 이 싸움을

두만강전역에 현합전선을 편
무색의 균위 사단들과 오종총7현
대를

전설의 정애로 오를
장행도 행사도 당시 군도 들격대
원도

가수도 치어당충원도
화선명사의 한모습으로 달린다 싸
운다

화선방송의 마이크는 월새가 없고
속보거리의 글발들도 시간마다 새
로운다

배낭에 살을 풀이엔 너명지원대
나팔통에 아이들은 소년단화선광
연대

인민행원, 진료소들에도
아전치료대의 간판이 내걸렸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살림
집들
새 모습을 드러내는 마을들 파
사ющихся 강하늘에 일어서는 다
리들

하루하루의 전파들이
전파를 타고 최고사령부로 날온다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는
온 나라가 치렬한 전장!

역두들에선 원호의 풍경을 불낸다
항구들에선 북부전선을 향하여
배고쓰리 울린다

온 나라가 북부전선을 암고 울고
기뻐하고
온 나라 마을과 마을들이
북방으로 달려온다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불이 쏟아지는 결의의 그 나날
씨우는 조선의 방방곡곡 울리면

운명의

화늘을 위로는 먹장구름
평원하는 난마도에
길도 통신도 다 끊어진 땅
설해고도에 놓인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며 무신왕에 직승기 내렸다

와~와~
그리움의 흥수가 머겼다
감격의 해일이 일어났다
맨발로 비쳤은 옥체로 달려나온
남녀로소

비행기를 예워쓰며 어루물며 흐느
겼다

방망한 새난의 바다속에서
풀어지는 비발속에서
목메여 우리르면 평양의 뿐은 하
늘을 싶고 왔다

꿈에도 더듬어 찾던 원수님 품
그 정이 인민을 감싸안았다
그 사랑이 북부땅을 그려 안
았다

얼굴마다 흐르고 흐르는 것은
눈물인가 불인가
한지에 나앉은 북부땅 자식들 생
각에

똑같이 잊고 끼니마저 먼지로
어비 이의 모습 눈에 삶 삶 어
려와

소리없이 티치는 오열의 바다에

사물자는 걱정의 인파
일군을 향해 달아서며
여기서 저기서

원수님의 인생을 묻는

종군수첩의 갈피에서

갈피갈피

땅에 젖고 눈물에 젖고
김향우의 얼룩진 종군수첩에선
어려운이나

지도 가신도 지어는 목숨까지도
일으면서 허락하면서

수령님들의 초상화만은 지켜낸 그
봉사인들이

모든것을 훑어보간 허우에
하늘을 떠나들고 굳건히 선 영생탑이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고 고침한 그 불굴으로

산 사람과 영생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죽은 사람은 없는 땅

미증유의 대재난을 박차고
수령옹위의 성세로 일떠선 인민

이 행성에 더는 없는 불길의 강자들

원수님의 인민앞엔

대홍수님이라
천과 불의 전쟁도 뒤집음치리라

× ×

돌격의 기발들이 남기는

전투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울었네

백두산용웅년돌격대의 전설장이

어디나고

본사기자 박상준

를 위하여!

오, 낮에는 물은 기의 바다
밤에는 흐물의 바다
백두령장의 부름에 천만이 천선용
사로 일떠선
결사의 전쟁
북부전선은 승리 승리를 위해
달린다 흘는다 불린다!

해빛

류동호

눈물젖은 목소리들
사람들의 손과 손을 잡으며
그 첫은 어깨들을 둘러싸안으며
걱정에 갈린 목소리로 일군은 훠
센다

—여러분, 경애하는 원수님께선 지금
북부전선을 너희들의 두를에
웃을 찾으므로 먼저 펴려났구나
하고 계십니다

오, 들판
천수님의 살풀이

그 꿈 떠나 순간도 뜯는 인민
이여

우리 하늘에 사랑의 태양은 눈부
시다

무거운 하늘을 들어올리며
터져오르는 만에 소리 만에 소리

아, 비쳤는 가슴들이
애하게 기다려온 원수님 소식
그것은 마음에 서리고 늦기 있었던
재난의 구름을 가서온
삶의 해빛 운명의 해빛!

무겁게 드러웠던 먹장구름이
쭈~욱 깔려지고 비가 멎는다
맑고 푸른 하늘을 열리는 북부땅에
풀어져내리는 해빛, 저 해빛...

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진대도
원수님 한분만은 이 세상 끝까지
제 날의 한분만은 지켜낸 그
봉사인들이

한몸그대로 침몰이 되고
폐루가 되고 교각이 된 불사신들
그 아래에 밭들며
그 심장들에 밭들며

빛 뿐만이!

빨래 산의 땅난이 급이치는 땅
노래가 없으랴

시가 없으랴

그 누군가 선창에
그리운 노래 원수님의 노래
부당의 하늘을 빙 얼어재끼며
어느덧 창향으로 떠나고자 한다

그것은 힘이다 불이다 전격의 보
성이다

× ×

빨래 산의 땅난이 급이치는 땅
노래가 없으랴

시가 없으랴

그 누군가 선창에
그리운 노래 원수님의 노래
부당의 하늘을 빙 얼어재끼며
어느덧 창향으로 떠나고자 한다

그것은 힘이다 불이다 전격의 보
성이다

× ×

불도 가니로 끓는 전장에

잠시라도 고요가 깃들면
하늘의 헤도 식어버릴듯
작아져진을 이어온 사람들

한국기념사업회

